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3월 10일 (제99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졸업은 새로운 시작

2월은 졸업시즌이고, 3월은 입학식이 거행된다. 이것은 곧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초등학교 졸업은 중학생으로서의 시작이고, 중학교 졸업은 고등학생으로서의 시작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초년사회인이 되거나 캠퍼스 생활이 시작된다. 또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로 나가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거나 결혼생활이 시작된다.

‘끝’을 의미하는 순수 우리말은 ‘끄트머리’다. 이는 ‘끝+머리’가 연결된 말이다. 달리 말해서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머리, 새로운 시발점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졸업은 업그레이드를 위한 행사일 뿐이다. 그렇다면 죽으면 끝일까? No. 우리 삶에는 졸업은 없다. 인생 졸업도 결코 끝은 아니다. 다시 사는 세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좋은 시작을 하려면 앞선 과정에서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 성도 자녀 중에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에 가고,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많이 봤다. 또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혹은 대학원에도 간다. 내 말인즉 이것이다. 이 땅에서 잘해야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에 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 달음질하는 자가 향방 없이 하면 아무 소용이 없듯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으뜸이요, 가장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파하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보살피며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자. 그러면 이 세상을 졸업하고는 주님의 얼굴을 뵈는 세상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지 않은가!

지도 속의 길만 찾지 말라

필리핀(Philippines) 세부(Cebu)를 다녀온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우리는 다시 태국(Thailand) 치앙라이(Chiang Rai)로 향했다. 목사님 표현처럼, 몸은 점차 노쇠하여 지쳐가지만 종은 종일 수박에 없는 고로 그분의 부르심에 기꺼이 따르기 위함이다. 지난 2012년 우리는 치앙라이 고산족인 아카족에게 복음을 전한 권영화 전도사의 요청으로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교회는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오늘 아카예수중심교회 제2성전은 그 이후 본교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아카예수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 하겠다.

우리는 지난주일 오전예배 후 바로 짐을 싸서 공항으로 집결했다. 대략 6시간의 비

답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목사는 순수 아카족 출신으로 선교차 방문했던 미국 출신 낸시(Nancy) 사모와 결혼 후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인물이다. 아시아 소수민족의 후예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의 종이 되었고, 교회, 신학교, 구호단체 등 큰 사역을 담당하며 아카족 사회에서는 매우 성공한 인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목사님은 그와의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도 속의 길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원주민이 아는 길을 찾기 원한다. 곧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한다. 나는 이제 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을 듣기 원하고, 한국

다고 강조하셨고, 이제 아카족만 바라보지 말고 태국 전체, 나아가 동남아시아의 모든 영혼들을 끌어안는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되라고 축복하셨다. 영어에 능통하고 5개국의 아카족에 영향력 있는 이제 목사와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느끼고 기대하게 되었다. 이튿날 저녁, 아카예수중심교회 제2성전 입당예배를 위해 마을입구에 도착하자 전통복장을 입은 성도들이 꽃목걸이를 걸어 주며 환영해주었다. 마을입구에서 성전에 이르는 길 양편에 작은 등잔불을 연달아 세워놓은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가로등이 없어 어둠 길을 밝히기 위해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성전 앞마당에서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한



태국 아카예수중심교회 제2성전 입당예배

행으로 밤늦게 도착한 우리는 치앙마이(Chiang Mai)에서 1박 후 12인승 승합차로 3시간을 이동하여 치앙라이에 도착하였다. 올해 들어 필리핀 및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한 가지 기대가 있었다. 이제 먼 거리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엔 목사님의 연세도 있고 어려움이 많은지라 좀 더 가까운 거리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 기도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치앙라이 도착 후 당일 저녁에 숙소로 찾아온 아제(Aje) 목사와의 만남은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

으로 초청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 나는 아제 목사를 만나며 이런 기대를 했다.” 이제 목사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는 아카족이 태국뿐 아니라 중국, 미얀마(Myanmar), 라오스(Laos), 베트남(Vietnam) 등 5개국에 약 200만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다른 부족과 달리 태국의 아카족은 인구의 40%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카족 선교와 그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목사님은 무엇보다 먼저 교육부재는 후진성을 탈피할 수 없으니 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

바탕 축제가 벌어졌다. 성도들에게는 음식을 나누어주고 아카예수중심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아제 목사 일행과 함께 복을 두드리고 춤을 추었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기쁨의 축제였다. 이번에도 동행한 조의수 장로는 아카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은혜의 생수에 흠뻑 젖는 체험을 했다고 기뻐했다. 권영화 전도사가 오랜 세월 믿음을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린 결실이 아카족 마을에 아름다운 봄꽃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다.(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목사



아카예수중심교회 주역들과 함께



아카족어 통역을 맡은 아제 목사 부부와 함께



아카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의 환영행렬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55:8~11)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아름다운 생각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고, 멋진 생각은 멋진 미래를 만들고, 큰 생각은 큰 미래를 만듭니다. 반대로 구차한 생각은 구차한 미래를 만들고, 쪼잔한 생각은 쪼잔한 미래를 만듭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면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공상맞은 생각을 가지고는 화사한 미래가 없고, 뻔뻔이 속같이 좁은 생각으로는 위대한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름답고, 크고 멋진 생각으로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습니다. 돈이 됩니까? 시간이 많이 됩니까? 학습이 필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 쉬운 것을 왜 못합니까? 이왕이면 좋은 쪽을 생각하고, 이왕이면 크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에 당신의 미래가 바뀐다는데 왜 못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무한한 능력과 넘치는 가능성과 생산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에서 먹고 자라 야성을 잃은 호랑이와 같이, 인성을 잃어 개나 돼지처럼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성을 잃고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안 되고,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신성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만 버리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55:8~9) 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심은 데공나고 팔심은 데팔난다

여러분, 참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무를 살리려면 나뭇잎을 쳐낼 것이 아니라 썩은 뿌리를 쳐내야 하듯, 근본인 생각을 바꿀 때 인생이 살아납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각이 바뀌면 안 들리던 것이 들리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

람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든 것이고, 그들로 인해 신문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인생은 생각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생각이란 '어떤 안경을 끼었느냐'로 설명할 수 있는데, 파란 안경을 쓰고는 절대 빨간색을 느낄 수 없고, 빨간 안경을 쓰고는 결코 하얀 눈을 볼 수 없듯이, '다 잘 될 거야'라는 안경을 쓰면 다 잘 되는 쪽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잘 되지요. 그러나 '안 돼'라는 안경을 쓰면 만사가 안 되는 것만 보여 진짜 인생 전반이 안 되게 됩니다. 비판이나 푸념의 안경을 쓰면 제반 사를 다 비판하게 되고(롬

14:1~3), 모든 것에 다 불평불만하게 되나 긍정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 인생이 긍정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바꿔야 하듯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고착된 생각을 바꿔야 미래가 박수를 치며 달려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 이 말씀인즉 이렇습니다. '구하면 얻는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까지는 하지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부터 일하십니다. 기쁨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내가 기름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쥐고 있습니다. 직진할 것이냐, 우회전할 것이냐, 좌회전할 것이냐, 아니면 후진할 것이냐, 이 모든 선택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운전하시겠습니까? 희망과 긍정 쪽입니까? 부정과 불신 쪽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유럽을 뒤엎는 대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앞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시편 81편에는 "네 입을 넓게 열라"(시 81:10)고 하셨습니다. 크게 열라 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음을 통해 후사를 잇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종의 몸에서 난 자를 통해 대를 이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 못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생각을 키우신 것입니다(창15:5). 생각을 바꾸신 후에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을 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벌린 만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리는 것도 못합니까? 입이 찢어지도록 큰 생각을 왜 못합니까? 저는 정말 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산예루살렘교회'에서 '한국예루살렘교회'로 교명을 바꾸겠다고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냥 철산이라고 하세요. 무슨 한국입니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예루살렘'으로 개명했었고, '세계는 교구다'라고 생각했더니 지금은 세

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생각대로 됩니다.

한계는 스스로 긋는 것이다

생각이 멈추면 인생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비행기라도 조종사가 내리면 뜰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운전자가 내리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일진대 생각이 없다면 삶이 어찌 나갈 수 있고, 날아 오를 수 있겠습니까? 생각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큰 파괴력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원자폭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원자폭탄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사막에 165층 건물을 지은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짓겠다는 생각이 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니 결국 팔았지 않습니까(요13:2)? 고아 에스더는 왕후가 되겠다고 생각하더니 결국 왕후가 되어 위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밭이라 생각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고도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이란 것이 이렇게 인생을 좌우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돈이란 좋은 프로그램을 먹고 사는 애벌레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란 것이 곧 아이디어요, 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돈을 좇아다니는 돈의 노예가 될 뿐이지요. 기발한 생각으로 돈이 좇아오게 할 때 돈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생각이 곧 결과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주 삼라만상이 창조된 것처럼, 내가 생각대로 말하게 내 인생을 변화시켜 나를 실패로 데려갈 수도, 축복과 성공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게 무엇 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은 무엇 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 생각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할 수 있다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 큰 생각으로 전환하세요. 그러면 아름답고 멋진 미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신령한 체험을 사모하라

성경 속 세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행위는 의로 우시다. 하나님만이 뜻과 말씀과 행동에 모두 자유가 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권리를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조물들은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없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찌니라'고 하시지만, 전쟁 때에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신다. 그것도 '남자, 여자, 늙은이, 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사정 두지 말고 싹 죽이라'고 잔인하게 명령하신다. 어찌 보면 이율배반 같고 어떤 모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법을 스스로 어기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것이 법이요, 저렇게 하라면 저것이 법이다. 하나님은 백세가 다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자식을 얻을 것이라고 명하신다. 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 기르니까 이제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독선인가? 억지인가? 아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것이다.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싹이 나고 자란다. 그 나무는 잎이 무성한 때가 있지만 잎이 목적이 아니다. 그 나무는 꽃이 많이 피지만 꽃이 목적이 아니다. 바로 그 열매가 목적이다. 그 목적을 위해 나무는 자라야 하고 다듬어져야 한다. 그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이 곧 법인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고, 이

제 신약시대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저주를 당하게 된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때로 변덕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는 변화일 뿐이다. 하나님의 독선과 고집이 아닌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법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요, 각 개인의 사정에 우선한다. 따라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자신이 행하는 바가 다를 경우에는 그것을 일치시켜야 하며 그 방법은 딱 한가지뿐이다. 즉 말씀의 내용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준을 말씀의 내용대로 끌어올리는 방법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말씀에 관한 순종만 있을 따름이지, 해석이라든가, 적용이라든가 하는 주관적인 생각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를 통해서건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알게 되었다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억누르고라도 우선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다. 그것이 말씀에 우선하는 겸손이요, 그 겸손을 행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비로소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변화되는 신령한 체험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그분이 나를 부리시는 주인이시요, 나는 그분을 종으로서 섬기겠다는 신앙고백인 것이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성서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사전 답사를 위한 준비를 했고, 덕분에 성경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성경을 더 깊이 읽게 되었다. 그리고 욕심을 조금 더 내서 성지 예루살렘을 다녀올 생각에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예루살렘만 성지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성지라는 생각에서였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도 생각한다. 설교 예화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체크해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알게 된 사실은 붙잡은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붙잡지 않은 말씀들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만이 성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이 성지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축복과 은혜로 향상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중고등부 교사로서 맡겨진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늘도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는 구별된 삶, 나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이다.

이은성 성도
es2563@naver.com



:: 성경에세이 ::

:: 연단을 넘어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선(最善)

여보게!
어느 성도가 구속되었다고 하길래 경찰서를 간 적이 있네. 그런데 경찰서 문 앞에서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게 있었네. 바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문구였지. 나는 그 문구를 두고두고 생각했네.

우리가 사건 사고가 나면 먼저 112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지.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경찰이 달려와 우리를 도와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야. 또 불이 났을 때나 응급환자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119 아닌가.

여보게!
내가 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문구를 두고두고 생각했는지 이제부터 이야기 하려고 하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찰이나 공무원보다 못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고?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히 도와줄 것은 잘 믿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건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 같은 느낌 때문인지 모르겠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 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네. 늘 우리에게

게 '무엇을 도와줄까?' 물으시는데, 말을 안 하니 답답한 노릇 아니겠나.

하나님은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구하라고 하셨네, 그러자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지(대하1:7~10).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묻는다는 것은 도와줄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도와줄 능력이 된다는 뜻 아니겠나?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가 안색이 좋지 않자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지? '왜 그러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일세. 도와주겠다는 거지. 그때 느헤미야가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다니(느2:4~8) 아닥사스다 왕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네. 또 금식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선 에스더에게 왕이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했을 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에7:1~3) 했지.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얻었지.

그러나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못하나? 하나님은 늘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기다리시는데. 괜히 하나님 앞에서 품잡지 말고 필요한 것을 구하게.

朋友

'헬조선', 'N포세대', '경기불황', 불합리한 현실과 처우... 이런 여러 이야기들은 지금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자세히 묘사해준다. 그런데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반응들이 조금 이상하다.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원망하고 혐오하며 미워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분위기이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선과 악이 존재하는데, 그 양 끝에는 '최악'이 있고 반대쪽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선'이 있다. 원망과 혐오, 미움과 분열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뒤에 악한 사단의 거짓말이 있다. 그 거짓말은 바로 '나는 피해자다'란 생각이 들면 반드시 '가해자'가 생긴다. 가해자가 지목되면 가능한 모든 고통들만 모아 상대를 더 악하게 묘사하여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긴다. 그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한 가지, '원망'뿐. 내 삶의 모든 고통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며 게으르고 나태한 자기연민에 빠진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건 이 나라, 저 정부, 저 남자, 저 여자, 내 부모 때문이야." 한번 이 맛을 들이면 마스터키를 가진 것

처럼 모든 상황에서 손쉽게 내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이것이 과연 삶의 진실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완벽한 환경은 평생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힘을 주셨다는 것이다. 자유는 주홍빛 같은 죄악 앞에서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는 힘이다. 골리앗 앞에서 고개를 들고 나의 물맷돌을 집어던지는 힘이다. 형제들에게 팔리고 누명을 뒤집어써도 찬양하며 충성하는 힘이다. 천만인이 둘러싸도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다. 세상은 결단코 우리 소망의 날개를 묶을 수 없다. 내 스스로 내 날개를 꺾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어제보다 한걸음 더 아름다운 풍경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갚아주신다. 당장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히 나아가자. 하나님의 자녀에겐 언제나 최선이 어울린다.

이은총 전도사

:: 일본에서 온 편지 ::

:: 참된 깨달음 ::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게 하는 욕심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얼굴 반이 마비되고 경련을 일으키며 입까지 돌아갔었던 직장동료가 어느 날 깨끗하게 나온 것을 보고 그 사연을 물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귀신을 쫓고 기도해서 나왔다고 전했고, 깨끗하게 고침 받은 것을 본 그 자매는 큰 충격을 받아 그로인해 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교회에 나오고 얼마 후 어버이날이었다. 그 자매가 부모님과 얼굴도 보지 않고 산지가 오래된 것을 들어 알고 있었던 주의 종은 카네이션을 일부러 여유 있게 만들어서 '남았으니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께 달아드리며 감사를 말로 전하라'고 했다. 처음엔 죽어도 못한다 했지만 결국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다. 직접 달아드리는 것은 못하고 테이블위에다 '엄마 고마워요'라고 쓴 메모와 함께 뒀는데,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엄마가 아주 기뻐하며 "요즘 어때?"하고 말을 걸어와서 다시 부모와 말을 하고 사이가 좋아졌다며 기뻐했다. 그 후 한 남성을 만났고, 조건은 보지 않고 '나는 크리스천이니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결혼해도 좋다'고 하며 전도를 했고, 우리 성도 모두의 손정성이 담긴 작고 예쁜 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렸다. 나이도 있고 해서 좀 빨리 아기를 원했지

만 뜻대로 되지 않자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기도를 드렸다. 직장은 찾는 중이었고 아르바이트라 생활은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두 아들을 주셨고,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주의 종은 이 가족이 정말 만사에 축복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다.

얼마 후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남편은 정사원이 되었고, 집사님도 아이를 돌보면서 다닐 수 있는 좋은 직장으로 축복을 받았다. 하늘을 나는 기쁨이 주의 종에게도 충만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이 변하고 가끔 주일도 빠지고, 나와도 예배 중에 잠만 잤다. 주의 종은 이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교회를 그만두고 싶다고 한다. 주의 종은 너무나도 놀라서 다시 이유를 물었더니 십일조를 못하겠다고 한다. 전에는 형편이 어려울 때라 십일조 금액도 작았고 그래서였는지 십일조를 아무 말 없이 드렸는데, 이제 남편도 정사원이고 자신도 직장생활을 하니까 금액이 커져서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옥은 가기 싫어서 억지로 참고 다니다보니 얼굴이 굳어지고 기쁨이 사라졌다고 한다. 종은 마음이 막히고 답답했지만 십일조를 안 한

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니 십일조를 못 하더라도 우선 교회는 나오고 믿음생활을 해야 지옥을 면할 것 아니냐고 달래며 기도를 해줬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재앙의 씨로 바꿔버리는 게 아닌가하고 종은 기도를 하며 기다렸지만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부모님과 화해했을 때 그렇게 기뻐했고, 부모님도 교회에 감사의 인사까지 오셨었는데... 나이 먹고 결혼문제로 고민할 때 주님은 남편을 주셨고, 아기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은 두 아들을 주셨는데... 받은 복을 감사했던 사람들이 왜 돈 앞에서는 감사를 못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지 못하고 넘어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축복을 왜 욕심으로 인해 재앙의 씨앗으로 바꿔버리는지, 그렇게 잠깐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이 작은 종의 마음이 이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떨지 싶어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양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위로의 말씀이 들리는 듯했다. "너는 전했다. 그러나 더욱 전하고 전해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한 능력과 화려한 언변뿐만이 아니라 인간미(애정)가 넘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문안을 올리면서 의미 없는 연하장을 대신하여 양말을 몇 켤레 보내드립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저의 영혼과 육체도 더욱 강건해지겠지요. 그때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저의 영원한 사부이시며, 큰 형님되신 이초석 목사님께 피터 박(박 베드로) 올림

:: 성도편지 ::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초석 목사님

이 목사님을 처음 만난 지도 어언 30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제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세상(비진리)과 절대 타협치 않고 꿋꿋이 뜻대로 바라보고 가시는 모습은 항상 제 마음의 지표가 되었고, 누구에게나 자랑스

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이는 들어가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 목사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 다시 일어나 달음질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초석 목사님! 아직도 30년 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사택에 처음 들어갔을 때, 빵꾸난 제 양말을 보시더니 서슴지 않고 서랍을 열어 새 양말을 꺼내주셨던 광경을 말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출중

:: 교단소식 ::

Only the Way



서울예수중심교회 청년부흥제 (구로 예술나무씨어터, 2019. 3. 1~2)

'Only the way-나를 따라오너라(마 4:19)'라는 주제로 3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구로 예술나무씨어터에서 서울예수중심교회 청년부흥제가 있었다. 이 부흥제에는 서울예수중심교회 대학부도 초청되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젊은이들 300여 명이 공연장에 가득 찼다.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는 첨단시대에 예수가 가신 그 길(Only the way)을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좁은 길임을 알기

에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모습은 너무도 귀하고 귀했다.

구로 예술나무씨어터가 들썩일 정도로 열정이 가득한 찬양시간에 이어 '내 길 더 잘 아시니'라는 뮤지컬 공연이 이어졌다. 이 뮤지컬은 우리 교단 맞춤형 공연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 주님 일을 열심히 하는 두 젊은이(대학생, 회사원)들에게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과 함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주님께 맡기자'고 깨달아가는 교훈적인 내용이었다.

이어 감사로 서신 이시대 목사님은 뮤

지컬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면서 참된 성장은 고난 속에 있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환경(어떤 인생길, 어떤 고난)이 왜 있었는지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고후5:17)이기 때문이다. 또 '형편에 꿈을 맞추는 것이 아닌 꿈을 꾸면 형편이 바뀐다'고 말씀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중심교회 젊은이들은 '오늘! 지금! 당장! 큰 꿈을 갖고 도전하라'고 말씀을 이어 나가셨다.

이번 청년부흥제를 통해 예수중심교회 젊은이들은 예수를 따라 가는 이 어려운 길이 비록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크고 창대한 꿈으로 가는 길임을 확신했다.

기자 송현혜 성도 charisma0691@hanmail.net

하나님의 영광을!

34년 만에 우리 교회로 돌아온 새 신자가 처음으로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삶을 들여다볼 때 무척이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땅의 것들을 먼저 구하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마6:33) 참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으심에 합당한 간구임이 분명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짧고 분명하게 요약해놓은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삶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지기로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선포했음에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늘 아버지께 감사한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왕의 영광을 위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며 의연하게 풀무불 안에 들어갔던 그의 세 친구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정신은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고전10:31)을 품고 살았음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왕이 그들을 더욱 높였다는 기록이 있지만 과연 왕이 높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그들을 더욱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작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아 '자녀로 아버지를 더욱 영화롭게'(요17:1)하는 축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JC 아카데미 개강

날짜: 2019. 3. 12(화) 저녁 8시 30분 문의 02-533-9191